



[교역동향] 英,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치즈 수출 증가세

- 1/4분기 치즈 수출량 2,300톤으로 전년대비 17% 증가



영국의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국가로의 치즈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세청(HMRC)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국가의 수요 증가로 금년 1/4분기 치즈 수출량은 2,300톤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1/4분기 영국으로부터 64톤의 치즈를 수입한데 이어 코로나19 확산 이후 유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대되며 소비량이 급증한 가운데, 치즈 소비도 크게 늘어나면서 금년 1분기에는 467톤의 치즈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호주와 뉴질랜드의 영국산 치즈 수입량도 각각 3%,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업원예개발공사(AHDB) 관계자는 브렉시트 단행으로 인해 EU와의 교역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시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출처 : ahdb.org.uk, 8월 23일자 >

[소비동향] 英, 코로나19로 가정 우유배달 수요 급증

- 지난해 매출 20% 이상 상승...재사용 가능한 유리병 활용으로 선호도 높아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증가로 영국내 가정 우유배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영국 유업체 물러가 운영하는 가정 우유배달 업체 Milk & More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비자들의 안전하고 신선한 배달우유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175천명의 새로운 온라인 고객을 확보하며 매출액이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환경보존은 물론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체는 여러 번 재활용이 가능한 유리병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업체 측은 급증한 수요 증가에 우유배달원 등 필요인력 충원, 모바일 어플 사용에 취약한 노년층 고객 확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bmmagazine.co.uk, 8월 23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